광주시청 손현호, 회장배 역도 3관왕 '번쩍'

81kg급 인상·용상·합계 모두 1위
올 시즌에만 두번째 3관왕 달성
같은 팀 안시성 여자부 금 2·은 1
김담비 용상·합계서 동 2 획득

회장배 역도경기 81kg급에서 3관왕을 차지한 광주시청 손현호(가운데).

여자부 64kg급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한 광주시청 안시성. 〈광주시청 역도팀 제공〉

손현호(24·광주시청)가 2023 한국실업역도연맹회장배 역도경기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손현호는 지난 24일 강원도 양구 용하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일반부 81kg급에서 인상 150kg, 용상 193kg, 합계 343kg을 들어 올렸다.

손현호는 인상 1 시기에서 145kg을 들어올린 뒤 2차시기에서 150kg을 성공시켜 1위를 확정한 뒤 3차 시기에서 155kg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용상에서도 1차시기 187kg, 2차시기 193kg을 기록하며 1위를 확정한 뒤 3차 시기에 200kg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합계에서도 343kg으로 1위에 올랐다.

손현호는 6월 제82회 문곡서상천배에 이어 올시즌 이 체급 두 번째 3관왕을 달성했다.

손현호는 "올시즌 두 번째 3관왕을 이뤄 내 뿌듯하다. 지난 동계훈련 기간 체력과 기술 훈련을 열심히 한 게 좋은 성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며 "자만하지 않고 더욱 노력해 남은 전국대회와 10월 전국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따 광주 역도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청 안시성(26)은 25일 열린 여일부 64kg급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안시성은 인상에서 93kg을 기록, 94kg을 들어올린 박다희(경남도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용상과 합계에선 각각 112kg과 205kg의 기록으로 1위에 올랐다.

광주시청 김담비(24)는 24일 열린 여일부 49kg급에서 동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김담비는 인상에서 60kg으로 4위에 그쳤으나 용상에서 81kg을 성공시켜 3위를 차지했고, 합계에서도 141kg의 기록으로 3위를 기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PGA 3부 투어 프로 골프선수
스코어카드 위조 시인 후 기권

미국프로골프(PGA) 3부 투어에 해당하는 PGA 투어 캐나다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스코어카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시인하고 기권했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채널은 26일 저스틴 더든(미국)이라는 선수의 사연을 소개했다.

더든은 지난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PGA 투어 캐나다 오타와오픈(총상금 20만 달러)에 출전했다.

그런데 이 대회 2라운드가 끝난 뒤 더든이 실제로 친 타수보다 2타가 적은 타수를 적어냈다는 것이다. 마지막 18번 홀에서 더블보기를 했지만 더든은 파를 했다고 써냈다.

더든과 동반했던 선수들이 이에 대해 이의 제기하자 더든은 대회 경기위원회에 "파를 한 것이 맞다"고 답했으나 이후 그는 기권을 선언했다.

만일 더든의 속임수가 통했더라면 그는 줄어든 2타 덕에 컷을 통과할 수 있었고, 16명의 선수가 부당하게 컷 탈락할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후 더든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털어놓으며 "스폰서와 동료 선수들, 가족과 저 자신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고 스코어카드 조작을 시인했다.

PGA 투어 캐나다는 징계 여부를 묻는 골프채널의 질의에 "내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전남도청 윤웅진, 전국 우슈대회 '최우수선수상'

산타 -60kg급서 전승 우승

전남도청 우슈팀 주장 윤웅진이 제16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우슈대회에서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윤웅진은 최근 순천팔마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산타 -60kg급에서 전승을 거두고 우승했다.

8강전에서 박재현(영주시청)을 2-0, 4강전에서 최진오(서울시설관리공단)를 2-0으로 꺾고 결승에 오른 윤웅진은 이재준(포항시체육회)을 2-0으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산타 -70kg급에 나선 조의민(전남도청)은 동메달을 추가했다. 산타 고등부에서는 백다민(순천복성고)이 동메달을 수확했다.

투로에서는 김영준(전남도청)이 남도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남권·남곤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장민규(전남도청)도 태극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전남선수단은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 등 총 7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대한체육회장배 우슈대회에서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전남도청 윤웅진.(가운데) 〈전남도체육회 제공〉

윤웅진은 "이번 대회에서 생애 첫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해 기쁘다"며 "오는 10월 전국체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해 전국체전 5연패라는 대기록을 세우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고진영·김효주, 에비앙 정상 탈환 도전

시즌 네번째 메이저대회 오늘 개막…국내 최강 박민지도 출전

고진영

김효주

고진영과 김효주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네 번째 메이저대회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 정상 탈환에 나선다.

고진영과 김효주는 27일(한국시간)부터 나흘 동안 프랑스 에비앙레뱅의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리는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총상금 650만 달러)에 출전한다.

올해 한국 선수로는 혼자 2승을 따낸 세계랭킹 1위 고진영은 어떤 대회든 우승 후보에서는 빠지지 않는다.

김효주는 우승은 없지만 상금랭킹 9위, 그리고 그린 적중률 1위(74.5%)를 앞세워 평균타수 1위(69.62타)를 달릴 만큼 경기력은 투어 최상급이다.

둘은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정상에 올랐던 경험이 있다.

김효주는 2014년 이 대회에서 LPGA투어 첫 우승을 이뤘고, 고진영은 2019년 우승했다.

2019년 고진영이 우승을 차지할 때는 김효주가 준우승했다.

작년에도 김효주(공동 3위), 고진영(공동 8위)은 나란히 톱10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둘은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유난히 강했다.

고진영은 5월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 우승 이후 네차례 대회에서 한 번도 10위 이내에 들지 못한 흐름을 익숙한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벗어나겠다는 복안이다.

김효주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시즌 첫 우승의 물꼬를 트기에는 딱 맞는 대회라는 자신감을 지닌 채 프랑스로 향했다.

2016년 이 대회 챔피언이자 작년 KPMG 여자 PGA챔피언십에서 메이저 통산 3번째 우승을 수확한 전인지도 에비앙 챔피언십 두 번째 우승을 노리고 출사표를 냈다.

US여자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건재를 알린 신지애도 2010년에 이어 에비앙 챔피언십 두 번째 정상을 두드린다.

국내 일인자 박민지는 US여자오픈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메이저대회 나들이에 나선다. 에비앙 챔피언십도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출전이다.

지난해 첫 출전 때 코스와 날씨에 적응하지 못해 기대만큼 성적을 내지 못했던 박민지는 두 번째 도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사다.

신인왕을 향해 질주하는 유해란과 양희영, 최혜진, 신지은, 김세영, 안나린, 김아림, 지은희, 이정은, 최운정, 이미향, 주수빈, 유소연, 박성현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김수지와 이소미가 가세해 한국 선수는 무려 20명이다. /연합뉴스

전남장애인체육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안전 다짐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26일 전남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공·안전체전 다짐대회를 열었다.

행사에 참석한 전남도 전국체전기획단, 목포시 전국체전추진단, 전남장애인체육회, 시·군지회, 경기단체 등 관계자들은 결의문에서 "성공적인 전남장애인체전 개최를 위해서는 안전이 필수 사항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생명의 땅 전남, 함께날자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6일간 목포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전남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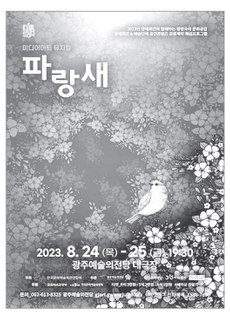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밀수
2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바비
3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명탐정코난: 흑철의 어영, 틴에이지 크라켄 루비
4관	밀수
5관	엘리멘탈
6관	밀수
9관	밀수
7관씨네카플	명탐정코난: 흑철의 어영, 인시디어스: 빨간 문, 여름날 우리
8관씨네카플	바비, 인시디어스: 빨간 문, 헌티드 맨션, 메타모르포제의 툇마루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기획공연 포시즌 미디어아트 뮤지컬
파랑새
일시 : 2023-08-24(목)~25(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

GAC 재개관 시리즈 - 포시즌Ⅲ「정트리오 콘서트」
일시 : 2023-08-26(토) 17: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